

지식인과 노동자¹⁾

마누엘 곤살레스 프라다

I

여러분은 이런 시로 강연을 시작해도 웃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더운 오후에, 대자연은 마치 다정한 애인의 손길에 지친 몸을 맡긴 여인과 같이, 석양이 질 무렵의 나른함에 한껏 취해 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시골 농부는 가쁜 숨소리를 내며 밭갈이에 한창입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젊은 시인이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하며 다가옵니다. 농부가 일손을 멈추고 말하기를,

“복 많은 당신은 노래하며 인생을 보내건만, 나는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질 녘까지 땅을 일구며, 밀알을 뿌리다가 지친답니다.”

“아, 농부님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우리 둘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심지에 서로를 형제라 불러도 되지요. 당신이 대지에 씨앗을 뿌린다면, 저는 사람들 가슴에 씨를 뿌린답니다. 당신 노동이 생산적인 것과 같이 제 노래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밀의 알곡이 육신에 영양을 공급한다면, 시인의 노래는 영혼을 기쁘게 하고 풍요롭게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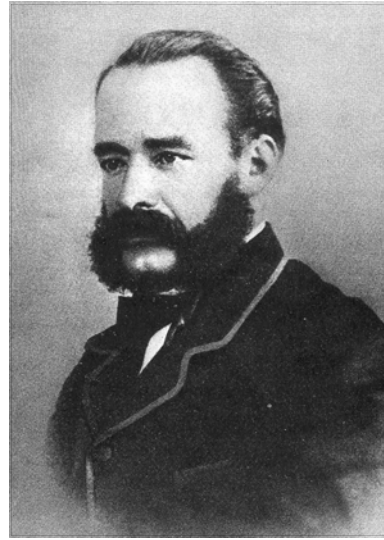
이 시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들판에 밀을 심는 행위는 머릿속에 사상을 넣는 것과 동일하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

1) 이 글은 1905년 5월 1일 페루 제빵노동자연맹에서 행한 강연문이다—옮긴이.

고력을 이용해 생각을 구상하는 철학자와 두 손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 사이에는 위계상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서재에서 일하는 지식인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서로 적대시하거나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온전히 지적이기만 노동이나 순수하게 육체적인 노동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고 숙고합니다. 자물쇠를 만드는 대장장이도, 담벼락을 쌓는 석공도, 글자를 새기는 인쇄공도, 사개짜임을 하는 목수도, 광물을 캐는 광부도, 심지어 진흙을 반죽하는 사람조차도 생각하며 숙고합니다. 전적으로 비정신적인 노동이 있다면, 그것은 기계가 하는 일입니다. 기계는 인간의 팔과 같은 일을 하지만 뇌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지적인 활동이라 분류되는 노동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상상하고 생각하는 뇌신경과 이에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근육이 하나가 됩니다. 또한 지적인 노동으로도 육체적인 피로감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는 화필, 조각가는 연장, 음악가는 악기, 작가는 펜과 하나가 되어 작업하며 또 고뇌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말을 많이 하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묵상만큼 비육체적인 경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신비주의자도 무릎을 꿇고 양팔을 쭉 펴는 등 육체를 사용합니다.

인류의 업적은 근육의 힘과 신경에너지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철로를 보면, 침목 하나하나가 한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철로로 여행할 때는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가 시체 위에 설치된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고 상상하게 됩니다. 박물



마누엘 곤살레스 프라다
(이미지 출처:
laguerrainjusta.blogspot.com)

관이나 도서관에 들릴 때도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곳을 지나간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박물관 또는 도서관이라는 관념의 공동묘지 안에 소장된 그림, 조각, 서책은 예술가나 작가의 사상뿐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여기서 여러분이란 제빵노동자만을 가리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고, 발효가 잘 되었나 지켜보고, 또 오븐의 열을 맞추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럴 때 빵을 만들지 않는 수많은 사람은 두뇌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쏟아지는 졸음을 물리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기자가 그렇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첫 시간에, 갓 구워낸 향긋한 빵이 완성되어 오븐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인쇄소에서는 흥밋거리로 가득한 일간지가 잉크 냄새를 풍기며 쏟아져 나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지난밤을 유익하게 보낸 것일까요? 신문기자인가요, 제빵사인가요?

명확하게 정의하자면, 신문이란 대중을 위한 백과사전이고, 일 회분에 맞춘 미량의 지식이며, 대중화를 위해 알팍한 언어로 치장된 과학이고, 또 도서관을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며, 가까스로 읽고 쓸 줄 아는 이들의 읽을거리입니다. 그러면, 빵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영양이나 생명의 상징입니다. 빵이 곧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빵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빵이 부족할 때는 어둠과 불화가 들이닥치고, 빵이 넘치면 다시금 빛과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빵을 받아들입니다. 야비한 범죄라는 이유로 육식을 혐오하는 채식주의자도 빵을 일컬어서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칭송합니다. 백만장자도 깨끗하고 맑은 물은 식탁에서 치울 수 있었지만 빵을 멀리하거나 빵을 대신할 음식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금융 재벌가인 로스차일드의 저택에서나 걸인의 작고 누추한 방에서나 빵은 언제나 위엄 있게 군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화 속 옛날이야기에서는 왕비들이 빵을 굽고, 굶주린 순례자에게 양식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황

제 일행이 마을을 방문할 때, 백성들은 환영의 표시로 빵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이 2세와²⁾ 같은 폭군들은 이러한 환대를 채찍과 검과 총으로 보답했습니다.

만일 신문기자가 자신이 더욱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자부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의 위장 없이 뇌가 활동하지 못합니다. 글을 읽지 않아도 되는 눈은 있어도 먹지 않아도 되는 위장은 없습니다.”

II

지성과 노동의 결합을 주창할 때, 허위적인 위계질서를 구실로 삼아서 지식인이 노동자를 지도하거나 안내해야 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뇌가 근육보다 더 고상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생각은 계급사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제국에서도 소수가 생각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조건적 믿고 노동해야 할 의무만이 있었습니다.

지식인은 빛이 되어 사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거대한 사회적 위기에서는 두 팔이 머리에서 생각한 바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균중을 동요시키는 반역의 바람은 고독한 사상가에게서 연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정의는 앞에서 나옵니다. 무지한 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계의 모든 법칙은 완력으로 집약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인류는 우매하게 체념했으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돌연히 어디선가, 위대한

2) 러시아제국의 마지막 황제.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퇴위했으며, 이듬해인 1918년 총살당했다—옮긴이.

언어의 메아리가 들려오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마치 곤충이 숲의 어둠을 밝혀주는 태양 광선의 뒤를 밟듯, 구원의 말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상가의 최대 단점은 자기만이 올바른 판단한다고 상상하며,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명령하는 지점까지만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혁명이란 위에서부터 도래하고, 아래로부터 행해집니다. 표면에서 계몽의 빛이 밝혀지면, 내부의 억압된 자들은 비로소 정의를 보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돌진하는데, 중도에서 멈추거나 결과를 생각하고 주춤하는 법이 없습니다. 온건파나 이론가는 기하학적인 진보를 상상하고, 형식적인 세부사항과 사소한 요소로 혁명을 복잡하게 만든다면, 군중은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모호한 이론이라는 고지에서 끌어내려 실천적인 영역으로 옮겨옵니다. 알렉산더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매듭을 풀려고 하지 말고 단칼에 잘라버려라.”

혁명가는 무엇을 추구할까요? 군중에게 영향을 주어, 동요시키고, 의식을 깨우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민중은 초기 혁명에 만족하지 않고, 잠재력을 분출시켜 계속하여 전진하다가 혁명 주창자들이 생각하고 원하던 것을 넘어섭니다. 이때, 무기력한 군중을 동원하려던 사람들은 활기 넘치고 추진력을 가진 유기적인 조직체와 직면하게 됩니다. 진리의 빛을 보급하고자 하는 새로운 두뇌와 자신의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와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매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즉, 혁명 초기에는 대담하고 진보적이던 사람들이 격렬하게 투쟁할 때나 승리의 시간이 다가오면 소심해거나 반동적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루터는 자신의 교리가 독일 농민들의 반란을 초래하자 겁을 먹고 뒷걸음쳤고, 프랑스 혁명가들은 서로가 서로를 단두대에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더 진보하길 원하고, 다른 쪽에서는 혁명을 멈추고 과거로 회귀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혁명가나 개혁가는 어린애를 닮은 데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식인귀신의 모습을 하고 괴성을 지르며, 결국 스스로가 유발한 공포심 때문에 겁을 먹고 떠는 것입니다.

인류는 전진할 때 지도자의 목부터 베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형을 막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적이 되고, 선구자가 걸림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모든 혁명은 강권 정치로 변하고, 모든 성공적인 혁명가는 보수주의자로 전락합니다. 어떤 사상이 실제적인 적용 앞에서 퇴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개혁자가 권력 앞에서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정치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실제의 현실은 물려받을 것 없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혁명에 대한 불신은 바로 혁명이 성공한 당일에 시작됩니다. 혁명 주동자이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자들로 남습니다.

진정한 혁명가란 한번 추진력을 발휘하면 진행 과정에서 수미일관하게 그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미래의 전도사이자 절대 진리의 대변자라고 자만하는 사람은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낡은 신념을 폐기하며 새로운 신념을 흡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늙어가는 것처럼 깨닫지 못한 사이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젊고 신식이라고 여기고, 우리 후대가 산 정상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관 주변을 서성거리며 살아갑니다. 태어나서는 요람으로 사용하고, 죽어서는 구더기가 되어 사용합니다(그런데 이 구더기는 고치를 짓지도 못하고 나비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 우리는, 대서양을 향해하던 콜럼버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선원들과 비슷합니다. “더 이상 향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구 저쪽에는 아메리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식인과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혁명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길에 싸인 바리게이트에서 휘날리고 있는 깃발 아래서 사상을 논하고 있고, 권리를 찾기 위해 조만간 함성을 지를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로 혁명

가들의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5월 1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절 행사는, 이곳뿐만 아니라 문명세계 전체에서 행하는데, 인류가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급진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의회가 불운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정부가 굶주린 자들의 허기를 채워줄 빵(maná)을 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의회는 특별세법을 제정하여 덜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며, 정부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지배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개인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자 정부 형태를 둘러싼 논쟁이나 투쟁은 부수적인 것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는 남아 있는데,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 즉 혁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혁명은 대통령이나 황제를 실각시켜 공화제를 군주제로 만들거나 전제정치를 대의정치로 전환하려는 국지 혁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국경선을 없애고, 민족주의를 소멸시키며, 토지의 소유와 이득을 인류 전체의 몫으로 돌리는 세계혁명입니다.

III

결론에 앞서 우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집약해야 한다면, 굴곡 많은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단 하나의 명석한 가르침을 선택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워야 한다. 인류 앞에서 정의롭고, 민족 앞에서 정의롭고, 가족 앞에서 정의롭고, 우리 자신에게 정의로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행복 역시 끊임없이 추구하고 향유해야 할 것이다.”

정의란 각자에게 합당한 바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부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몫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로부터 필요한 것만 아니라 편하고 즐거운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옵니다. 흔히 사람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만일 이 땅이 선박이고, 우리가 승객이라면, 일등칸을 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어귀에서 악취가 나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습기로 썩어버린 통나무 위에서 잠을 자거나 부자가 남긴 음식을 먹기 보다는 쾌적한 공기에, 좋은 선실과 훌륭한 음식을 누려야 합니다. 식량이 풍족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필요한 만큼 먹으면 됩니다. 식량이 부족하다면 선장부터 수습선원까지 소량만을 섭취하면 됩니다.

우리는 도가 지나치게 체념하고 희생함으로써 오히려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인류는 훌륭한 사람들의 희생과 단념을 통해서 정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역사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왕이나 정복자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뒤로 미룬 범인들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기주의로 죽어가는 사막과 같은 이 땅에 사랑의 생수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만일 인간이 초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희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소유한 자들이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네들 스스로 희생해서 하늘에서 상을 받으라고 하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지상의 권력을 누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몫을 취해야 합니다. 독점자가 선의나 자발적으로 우리 몫을 양도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귀족은 한 가지 특권을 포기하면, 곧바로 두 가지 특권을 요구합니다. 성직자는 십일조를 포기했다고 오늘 말해놓고 내일이면 십일조뿐만 아니라 다른 봉헌물까지 요구합니다. 고대 로마인은 소유의 상징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창입니다. 창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는 정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힘에 근거한 것이다. 소유주란 대화하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지주의 가슴은 쇠의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완고하고 차갑다는 것이다.” 히브리어에 정통한 사람들에 의하면, 카인은 최초의 지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19세기의 어느 사회주의자가 카인에게서 인류 최초의 토지 횡령자이자 최초의 형제살해자라는 두 가지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무서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유란 살인이다.”³⁾

아무튼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합리성을 잃어 버렸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의한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반란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가혹한 착취자를 몰아낼 수 있는 반란권도 인류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부여는 오늘날 보편적 신조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혁명은 이미 완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현 체제의 부패상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프롤레타리아트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심지어는 기독교사회주의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투쟁과 피의 대가 없이는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권리 찾기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득권을 한 치도 양보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들먹이고 있으나 속으로는 불의한 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현대사회의 근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요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못 본 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낡은 믿음이 사멸하고 애국심이 실추되었는데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인종과 국민성의 차이를 초월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연대에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저 멀리서 절규를 듣고도, 그것이 빵을 차지하려고 덤벼드는 배고픈

3) 이 말은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의 책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프랑스에서 최초로 무정부주의자라고 선언한 프루동은, “소유는 도둑질이다”, “소유는 자살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옮긴이.

자의 비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땅이 흔들린다고 느끼면서도, 그것이 혁명의 일보 전진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체의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그것이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부르주아지가 발산하고 있는 죽음의 향기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일, 사회의 낡은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돌진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물결이 일렁일 때야 비로소 약탈자들과 억압자들은 허둥대며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하려고 들 것이나, 군인들은 반란에 가담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애원할 것이나, 그들의 신은 듣지도 대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때쯤에는 누군가 도와주리라고 믿고 성이나 왕궁으로 들어가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방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노도와 같이 밀어닥치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기 처지를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한 번도 타인을 안타깝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악해서 이렇게 중얼거릴 것입니다. “야만인들이 범람하고 있구나!” 그러면 무수한 목소리가 하나 되어 천둥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야만의 범람이 아니라 정의의 대홍수다.”

[정수현 옮김]

마누엘 곤살레스 프라다(Manuel González Prada, 1844-1918) - 페루 출신의 문필가이자 무정부주의 사상가. 저서로는 『산문집』 (Páginas libres, 1894), 『투쟁의 시간』 (Horas de lucha, 1908) 등이 있다. 여기에 소개한 글의 원제는 ‘El Intelectual y el Obrero’이며, 『투쟁의 시간』에 수록되어 있다.

정수현 - 서울대학교 강사